

대림 제2주일

기도서 P. 214 C해

제1독서(바 루 5, 1-9)
 제2독서(필 리 1,4-6, 8-11)
 복 음(루 까 3, 1-6)

술 정 이

발행인 범석규
 인쇄인 김봉희
 주간조성호
 편집한상갑

편집실: 전주시 서노송동 560의 6
 전주교구청 내 (전화 ④2935)

■ 강론



“성탄은 다가오는가”

성 태 수 신부

성탄이 다가온다. 마음이 부풀다. 웰까? 성가연습, 구유 만들기, 성탄전야 행사, 그리고 읊나일—이런 일들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한다. 성탄에 대한 추억은 이런 일들로 메워져 있다. 성당이 북적거린다. 많은 사람이 모이니 좋다. 예수께서 오신단다.

그것은 아무래도 좋다. 우선 성당에 나가는 것이 재미 있다. 성탄절의 성당은 분위기가 있고, 내가 할 일이 있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또한 재미가 있다. 읊해의 성탄도 기차게 멋있는 성탄을 보내야지.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라”고 외친다.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란다. 회개! 재미없는 말이다. 자신의 내면으로 파고들기 보다는 밖으로 뛰쳐 나가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이기에 자기 자신속을 들여다보는 회개가 싫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오늘 세계가 직면한 심각한 위협은 핵무기의 파괴력보다 내적생활의 황폐화라 했던가.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찾아가는가, 술집이다. 순간적으로 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것은 역시 술 뿐이다. 그래서 술은 내 삶의 반려자처럼 나를 따라 다닌다. 그러나 그 술은 독소가 되어 나의 몸을 침식시킨다. 술로서 자기 몸을 망치게 되는 사람을 주변에서 보게 된다. 마음아픈 일이다.

참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회개! 그렇다.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란 자기 자신을 솔직히 하느님께 내보이는 것이다. 자기의 삶을, 자기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고통도, 꾀로움도, 걱정도, 죄스런 자기 자신까지도 모두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최후의 정착점이 아니기에 하느님의 뜻을 찾아 삶의 여로를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겠는가. 진실은 진실한 사람에게만 통할 수 있듯이 하느님은 회개하는 사람만이 만날 수 있는 귀한 선물이다. 하느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파고 들고, 내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이 나를 이끌 수 있을 때, 우리의 회개는 이루어진다. 돈과 타협하고, 게으름과 타협하고, 명예와 타협하고, 여자와 타협하고… 결국 이런 일들은 우리가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이리라.

성탄이 다가온다. 매년 맞이하는 성탄과는 무언가 달라야지. 내 마음에는 얼마나 울퉁불퉁한데가 많은가. 교만하고, 오기가 있고, 남을 염신여기는 높은 산을 짓아내려야지. 부정과 물의와 부조리와 잘 타협하는 굽은 것을 바로 해야지. 이웃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풍보하고, 비난하고, 혐오하는 혐악한데를 고르게 해야지. 그래, 읊해의 성탄은 멋있는 성탄이 되게 하자. 회개! 내가 좋아해야 할 말이다. 내 마음에 구세주를 안겨줄 메시지이다. 아! 진정 성탄은 다가오는가.

(순창 천주교회 주임신부)



마중 나가자!

—기다리는 자세

사람은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보다 나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비록 오늘에 겪는 고통이 태산같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바램이 내일에는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안고 지친 오늘을 이겨내는 것이다. 이러한 나날의 삶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했고, 많은 발전을 가져 왔다.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라. 비바람에 웅크리며 서내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병원 대합실에서 아픈 배를 웅켜쥐고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시장 모퉁이에 생강 몇몇 박을 쌓아 놓고 손님을 기다리다 못해 치마꼬리를 웅켜 잡으려 드는 사람들… 얼핏 보기에는 지친 군상(群像)들이지만, 그들에게는 희망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다. 비록 모두 막이기는 해도 식탁을 함께 할 식구들, 아픈 배를 나을 수도 있다는 기대감, 밤늦도록 책과 씨름하는 일도 한같은 자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나와 내 가족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풍토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풍토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풍토인가? —인간이 지닌 존엄성을 침해받지 않아야 하며, 맘홀린만큼의 보수를 받아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사회가 바로 그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이러한 풍토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이루어지는 날을 ‘앉아서 기다릴 수 만은 없다. 기다리는 자세는 멀치고 일어나서 마중나가는 자세이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의 뜻이 이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땅에 이루도록 꿈틀거려야 하는 것이다. 연중행사처럼 대림절을 맞지 말자. 오시는 구세주를 맞이하려 나서야 하는 것이다.

술 정 이 산책



「결건한
마음으로」



실망하기에는

시기상조다

김 병 엽 신부

일본군이 북지(북중국)을 쳐들어 가고 있었다. 그러니 까 피난 군중들이 북에서 남으로 피난을 가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한국 사람들도 섞여 있었다. 그런데 북중국의 어느 농부는 구름째의 피난민은 아랑곳없이 쟁기로 땅을 갈고 있었다. 성급한 한국사람, “여보세요 지금 당신은 뭘 하고 있오?” “나 지금 쟁기질하고 있어. 왜 그러해,” “지금 대포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소. 오십리 밖에 일본군이 쳐들어 오고 있소. 빨리 피난 가시요.”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 일본군 문제가 없어. 우리 4억 중국 사람 황해에다 오를수록 일본 불난리 나 그러면 일본사람 전부 죽어해. 우리 중국사람 문제없어 피난가지 않아도 해.”

이 말을 들은 한국사람, 역시 대륙성 기질을 가진 중국사람의 사고방식에 놀랐다는 이야기이다.

술정이 367호의 소리난에 「무언가 잘해보자 시작했던 순교자 현양대회 기념목주 판매실적이 너무나 부진한데서 좌절감마저 느낀 모양이다. 왜 이래야 하는가? 혹시라도 진행과정에 잘못됨이 있다면 내일을 위해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사랑의 행동을 보여 주어야 하지 않는가?」고 지적했다. 또한 평협 회장님께서 “평신도 사도직 활동 육성의 해”를 보내면서 형제애를 아쉬워 한 내용을 인용하여 술정이 소리난은 “일반 교우들이 오기로 협력하지 않는 양” 평가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일인 것 같다.

첫째, 우리 전주교구 교우가 절반은 본당내에서 절반은 공소에서 살고 있는 형편이고, 공소 교우의 절반은 서울이나 어느 도시로 생활터전을 잡기 위하여 나가 있음이 분명하다. 전주교구 교우들은 6만~7만인데 만개를 만들었으면 1/7개의 풀이다. 물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것 같이 느껴진다. 그러나 생각을 좀더 깊이 하지 않아야 했을까? 어느 유명한 저자가 책을 내놓을 때 한국인이 3,500만이니까 500만부의 책을 내놓을 우를 범하는가? 그러나 “신앙에 호소하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던가? 그러나 선전을 했어야 했다. 어느 물건이 시판될 때 라디오, TV, 신문에 얼마나 선전을 하는가? 너무 성급하게 형제애의 부재(不在) 인상으로 물어 부치면 잘못될 것이다. “급하면 돌아가라”는 명언이 생각난다.

둘째, 지금으로부터 7~8년전 <창조지>가 약 3년간 발행되었다가 모기판의 압력으로 자진 정간 하였다. 창조지가 처음으로 발행을 할때 각오를 했어야 했다. 그 시대의 상황을 읽을줄 알아야 했고, 알았으면 책임을 졌어

소비자 보호협회의 금상 획득!

한국 온수 보일러

난방·연탄보일러·기름보일러·공해방지

한국 流 온수 온돌 호남총판

이리 ② 8629 ⑨4415 군산 ③ 1322

도 지정 40호 설비사

전주지점
모집

현대인의 비극



김 경 수(스테파노)

현대인의 비극이란 나병이나 결핵 또는 암같은 질병에서 오는 불행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이 이웃으로부터 외면당하고, 잊혀지고, 버림받고 있다는 현실일 것입니다. 사랑과 애의 결핍, 이것은 틀림없이 커다란 죄악입니다. 온갖 착취와 부정과 부패, 가난과 질병으로부터 위협당하여 절가에 쓰러져 있는 버림받은 이웃에 대한 외면, 그것은 무관심이라는 가증한 죄입니다.

우리 한번 자기의 가슴에 손을 얹고서 생각하여 봅시다. 나 자신은 얼마 만큼이나 이웃을 생각하고 사랑하였는지를.....

현대에 사는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얼마나 생후하게 하였는지를. 우린 말로만 사랑했고 외쳤습니다.“가난하고 버림받은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목청껏 외쳐댔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이웃 사촌이 잘 살면 배가 아프다는 옛말과 같이 우리는 그런식의 사랑을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중에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어느정도 실천할 것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믿으며 생활하는 우리로써 생각하여 볼 문제가 아닐까요.

물질적인 사랑보다 마음적인 사랑이 더 중요하겠지요. 시기하지 않는 사랑, 질투하지 않는 사랑, 미워하지 않는 사랑이 이 사회에는 필요합니다. 남의 이목에, 체면에 끌리어서 하는 가식적인 사랑은 원치를 않습니다.

“나는 얼마나 이웃을 사랑했네” 하며 거리를 활보하는 알미운 자가 되지 맙시다. 젊은 연인들처럼 마음으로 주고받는 진실한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보다 밝은 사회를 위해서 대화하며 살아갑시다.

(신태인 천주교회 동막공소)

야 했다. 공갈의 공포에 뜻이 겨자진 자라 모가지 선세가 된 것은 지금도 못내 비참하기만 하다. 이번 가락지 목주도 마찬가지다. 인내로이 참으면서 판매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원망할 곳을 찾기는 너무 이르다.

셋째, 현금(現今)은 P. R 시대이다. 왜 평협은 지난 전주교구 사도회장, 수도자, 성직자 연수회 때 한마디의 말도 없이 합구를 하였는지? 합구가 하나의 시위였던가? 이 좋았던 기회에 왜 뚜렷하였던가? 아쉽기만 하였다.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우리가 성찰할 일은 평협에서 이 가락지 목주판매 이익금으로 사무실을 구해 교구 전반에 걸친 사목(평신도 사도직 활동) 사무실을 구하려는 좋은 목적으로 시도하였다 하니 전주교구 누구도 좋다.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겠다. 이 좋은 대립시기에 말이다.

행정, 경찰, 세무, 경찰, 교정, 보도, 3군사, 은행(부기·주산), 공인 감정사, (4·5급)

고입 대입 검정고시 주·야간

국·영·수 종합단과(매월 1일, 15일 개강)

이리 경문학원

원장 한정상

교사초빙: 전화 이리 ② 5943 · ② 4415



부끄럽지 않는 삶

나 종 윤

술 파는 여자는, 어떤 남자도 다 미남이고 와서 술마시고 텁주면, 순정쯤은 바겐데 말해버린다.

A라는 남자가 와서 술을 마시면, 술집 작부는 그 옆에 앉아 술을 따라 주면서 “A선생은 단군 이래의 미남이요!”하고 아양된다. A가 술 마시고 간 뒤 B라는 남자가 와서 술을 마시면, 작부는 B 옆에 앉아 “B선생은 단군 이래의 미남이요!”하고 또 아양을 떤다.

A나 B가 정말 단군 이래의 미남일까? A나 B가 술을 다 마시고 나가면 그 여자는 이렇게 말 할 것이다. “저 병신같은 놈! 술은 1천원이지 마시고, 돈은 2천원 내고 가느냐? 이 호구야!” A나 B가 단군 이래의 미남이라 미남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술을 팔려니까, 텁 받아 내려고 그것 때문에 있는 아양, 없는 교태 다 부리는 것이다.

사람이란 모름지기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자기에게 텁준다고 해서 미남이고, 안주면 추남이고, 그렇게 살게 아니라 소신대로 혼들림없이 살아야 한다. 아무리 장사속이지만 자신의 이(利)를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다. 술이 취하면 그만 마시게 하고, 밤이 깊으면 일찍 가라고, 말해 주는 것이 정직한 삶이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세상에 부끄러울게 없다. 어느 시대가 온다해도, 그 시대에 무슨 바람이 분다해도, 그 삶은 부끄럽지 않다. 정의는 외롭지 않으며, 진실은 슬프지 않으며, 정직은 부끄럽지가 않다. (김제 천주교회)

전국 추수감사제에 모시는 글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당회에서는 불별 더위속에 자연 재해와 농약 중독의 어지러움을 감내하면서 피땀을 쓸어온 들판에서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수확한 농민형제들과 뜻있는 분들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79 전국 추수 감사 특별미사」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모여 뿌릴 씨앗과 생명의 땅을 주신 하느님 대전에 그 노력의 결실을 봉헌하고 수확에 대한 감사와 노력에 대한 땃가를 헤아려 보며, 평화스럽고 정의로운 농촌 사회 발전을 기구하면서 또한 오늘날 농민의 사명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뜻깊은 잔치의 자리입니다.

이같은 감사와 영원과 다짐의 농민제전에 부디 오셔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9. 11.

한국 가톨릭 농민회 회장 최 병 육
총재 이 통 호(아빠스)

※ 교통안내 : ① 대전역에서 내리시는 분 : 도청 방향으로 도보로 10분 거리임

② 서대전역에서 내리시는 분 : ⑥번 ⑩번 버스를 타고 충청은행앞 하차

③ 고속버스 정류장에서 내리시는 분 : ⑥번, ⑩번 버스를 타고 충청은행 앞에서 하차

요금이 (332) 김병우



□여성 여러분에게
벗을 선사합니다□

송 옥 의 상 실

최 춘 자(로사리오)
(이 시 계 겸 옆)
전화 ⑧ 6219

결(축) 혼

전창현 씨 삼남 대수(베드로) 군
이동근 씨 사녀 해숙(크리스티나) 양

일시 : 79. 12. 16. 12시

장소 : 전동 천주교회

주례 : 전대복 신부

□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 신 속 배 탈

아파트 정육점

인후1동 인후아파트

전화 3-0612

최창옥(가스랄)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옆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⑧ 2-3301 (자택 2-8548)

□ 광업 차로 신속배달, 가정방문으로
겸침, 교우님들 자주 찾아주세요

신진프로판까스상사

대표 최 안드레아

전주시 진북동 천변도로

전화 ⑧ 5448 · ⑧ 1071

교우님들의 건강관리 상담

세종당 한약방

김 남 수(펠라도)

전주시 풍남동 3가 35의 9

(은행나무 사거리)

전화 ⑧ 2277

*교우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시보당 금방

(금·은·보석·각국 시계)

주 이 창 수(바으로)

전주 남문 옆

전화 ⑧ 8188 (자 ⑧0369)



(중앙)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왕 수 해
보좌 신부 정 태 혁
사도 회장 이 북 석

- 경향잡지 12월호가 사정에 의해서 발행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정기총회 연기...80년 1월 1일(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지성인을 위한 사상강좌...13일(목)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타 강당
제목—칼뱅스의 종교이념, 강사—박도식 신부(철학박사), 후원—대전신학대학
- 문화강좌...15일(토) 오후 7시30분, 가톨릭센타 강당
제목—신앙의 조명, 강사—김남주 시인, 후원—가톨릭 문의회
- 전주대 교수 초청 피아노 삽중주의 밤...10일(월) 오후 7시, 전주 시민문화관
후원—전주 가톨릭센타(가톨릭센타 고전음악 감상실 주최)
- 제121차 해설 공개 레...9일(일) 오후 2시, 복자성당 대강당에서

□ 전국 추수감사제...12일(수) 오후 2시, 대전 대흥동성당

※ 관심 있는 동민 형제 자매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3면 참조)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사도 회장 오 협 택
회장 이 회장

- 1980년도 사도회 임원 구성
회장—한형수, 부회장—조동근, 선교부장—김한기,
차장—차상열·한을순, 전례부장—김낙군, 차장—김
태수·윤안나, 봉사부장—강기호, 차장—박병환·윤
성준, 재경부장—박형식, 차장—박순선·심금남, 감
사—이정빈·김광수, 고문—박장춘·강남준·정만성
·오상팔·박종갑
2. 공손 판공일정
11일—마음리, 13일—광곡리(오전 10시), 12일—석
구리(오전 10시)
3. 본당 판공일정
18일—1·2·3·4반, 19일—5·6·7·8반, 20일—9·10·11·
12반, 21일—13반·기타반, 22일—학생회·주일학교
4. 성사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5. 성사때 밀린 교무금 완납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86,515원

(노총동)

주임 신부 김 정 중 출
보좌 신부 나 박 회장

1. 성모회 월례회: 오늘 공식미사 후
2. 신우회 월례회: 저녁미사 후
3. 공소 판공성사 일정: 신교리 공소—10일(월), 왕정리
공소—11일(화), 신원리 공소—12일(수), 다리리 공소—
13일(목)
4. 본당 판공성사 일정: 우아동—17일(월), 인후동—18
일(화)~19일, 중노2가—20일(목), 중노1가—21일
(금), 남노송동—22일(토), 24일(월)~기타구역.
※ 판공성사는 해당일정에 꼭 보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149,070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전 종 복
사도 회장 유 제 상

1. 공소 판공일정 변경: 미산리—10~11일, 전당리—12
~13일, 내동리—14~15일(변경된 일자에 착오없으
시기 바랍니다)
2. 세대주 사진 1매씩 준비하시고 판공성사에 임하세요
3. 중·고등학생 회장단: 회장—이식, 부회장—차선미
수고하시겠어요
4. 새로운 반장선에 반장님을 수고하세요
5. 80년도 봉헌금 신입을 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
한세대도 빠지지 말고 신입해 주세요

□ 지난주 봉헌금: 203,110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박 성 팔
사도 회장 조 성 호

1. 성우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이감천, 강기연 형제
2. 판공일정: 15일—다가동·태평동, 16일—진북동·고
사동·중양동·기타, 17일—원산동·화산동
저녁미사 후 친회에 걸과 고백성사
3. 가정방문: 10일—화산동(반회장 이누시아반),
11일—태평동 1·2·3반(최례사·허례사·최례마)
12일—태평동 4·5·6·7반(송누시아·신방지거·이을
라라·임글라라)
13일—진북동 1·2·3·4반(김마리아·유누시아·양바
울라·김안나)
- ※ 반회장님들 자기반 가정방문에 같이 방문
4. 영세식: 23일 저녁미사에(유아세례자 16일까지 신청
바람) 대부모와 같이 미리 준비 바랍니다
5. 첫 영성체교리: 10일~22일까지, 매일 오후 4시~5시

□ 지난주 봉헌금: 198,331원

(술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 대 권
사도 회장 이 강 노

1. 성모회 월례회: 다음주일 공식미사 후
2. 바자회 시작: 17일~20일까지
3. 예비자 세례식 있을 예정: 23일,
매일 저녁 8시까지 특별교리 합니다.
4. 신축기금 내주신분: 주임 신부(50만원), 강마리아(10
만원), 요안회(50만원), 윤선도(5만원), 이강준(3만
5천원), 오길선·장대안(3만원), 이복희·홍정례·
임봉례(각 2만원), 노송중·이명·장석인·권의연(각
1만원), 오창석(5천원), 김성녀(1천원), 주은순(3만
5천원), 조희연(10만원), 박병래(2만5천원)
5. 판공성사안내: 10일—진북2동 3·4반, 11일—진북2동
6·7반, 12일—진북2동 1·2반, 13일—금암동, 14일
—진북1동, 15일—태평동·동양아파트

□ 지난주 봉헌금: 120,110원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김 병
보좌 신부 유 기
사도 회장 수 종

1. 사도회: 동·반 신심단체장 저녁 미사 후
2. 자모회·성화회: 공식미사 후
3. 장우회: 저녁미사 후 회원은 빠짐없이 참석 바랍니다
4. 성가정회: 월요일 오후 2시
5. 주일미사에 빠짐없이 참례한 형제에게 79년도 모범
기념메달을 수여합니다
6. 가정방문: 전동·기타—11일~14일
가정방문 누락된 집은 사무실에 신고 바랍니다
7. 가을 판공성사는 21일~24일까지(교무금 완납 요망)
8. 글라라 형제회: 피정이 9일 오후 2시~10일까지 있음
9. 깊은이 성탄성가: 매일 저녁미사 후

□ 지난주 봉헌금: 279,950원

(파티마)

전화 ②0915

주임 신부 김 영
사도 회장 일 협

1. 영화상영: 16일 저녁 7시 “예수 그리스도”
영화관계로 7시 미사가 6시에 있습니다
2. 성탄준비 위원회 수고하시겠읍니다
위원—김수녀님·부회장님(글라라)·교육부장님·총
무님·봉사부장님
3. 가을판공 예정: 공소—18·19일, 본당—20~22일
4. 판공시까지 교무금 미납자 봉헌을 바랍니다

□ 지난주 봉헌금: 67,685원 교금: 55,500원

내 적 쇄신의 해

친애하는 교구내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동안 밝은 지혜로 민족의 어려운 시련을 극복했고 예언자적인 용기로 교회의 무거운 역경을 감수했습니다. 나는 새로운 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해에 여러분이 베풀어주신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에 마음깊이 감사드리며 아울러 이 한 해도 이 땅과 여러분 모두를 하느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금년은 내년에 맞이할 교구설정 50주년을 준비하는 해로서 우리는 그 어느때 보다도 교구의 일치를 더욱 굳건히 하고 각자의 사명감에 더욱 박차를 기해야 할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반성은 연례적인 반성이 아니라 교구의 새 역사를 정립하기 위한 새로운 반성이요, 우리의 계획은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획기적인 작업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과거 역사를 제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 양식을 후퇴시키거나 과거를 그저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살아온 신앙의 증거자의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되찾고 구체적인 한 나라의 역사 속에서 이룩된 구세사를 배우며 새로운 역사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수반하여 신앙의 눈과 마음과 정신이 쇄신되지 않는 한 진정한 자각을 가질 수 없고 새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항상 우리자신이 정화되기 위해 회개와 쇄신을 계속하는 교회이어야 힘을 통감하면서 금년 목표를 「내적 쇄신의 해」로 설정하

였습니다.

1931년 전주교구가 한국최초의 방인 교구로 설정된 것은 단순히 교세를 크게 확장시켰다고 인정 받아서가 아니라 그보다도 한국교회의 기적적인 성장을 결산해 주는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1831년 북경교구로 부터 독립하여 조선교구로 창설된 100주년을 경축하는 기념사업으로 전주교구가 설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연한 선물이 아니라 우리교구 선조들이 소유한 성숙하고 각별한 신앙심의 덕분이었습니다.

전주교구가 설정되기까지 이 고장 교회의 구성과 분포의 특색은 순교자와 순교자의 후예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거듭할 수록 이 고장의 산천 구석구석은 전국 각처에서 풀려온 선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교우촌이라는 새로운 혼락 공동체를 이땅에 남겨 놓았고 지금도 그 분위기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습니다.实로 이 고장은 한국적 출애굽이 넣은 가나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생계를 위해서가 아니라 신앙을 보존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안식처를 찾은 것이며 그들에게는 오죽 신앙만이 절약의 케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모두 함께 지내며 그들의 모든것을 공동소유로 나누고 재산과 물건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한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성전에 모였으며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사도 2, 44-47) 고 한 복음적 공동생활을 생생하게 구현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선조들이었습니다.

선조들의 신앙기초는 화려한 의식이나, 심오한 신학적 교리체계보다, 복음 을 읽고 묵상하면서 자기생활을 조명하는 복음의 생활화에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이웃에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토착화된 말씀으로 생생하게 전하였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이고장 교회에 사제가 상주하기 까지 다른 지방에 비해 장구한 생활동안 목자가 없는 중에도 꾸준한 교세의 증거가 있었던 것은 많은 수의 출중한 평신도 봉사자들을 가졌던 덕분이었습니다.

이 고장에 교회가 설립되면서 사제와 수도자와 평신도는 혼연일체가되어 제도로서 보다는 형제애로서 서로만났고, 의무감 보다는 복음적인 기쁨과 자발적인 노력에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였습니다. 특히 복 음 정신에 투철한 사제와 수도자의 사심없는 생활과 지부적(慈父的) 인 모습은 어려운 시대를 밝히는 한 가닥의 햇불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을 세상에 심은 사회참여 역시 타산적이고, 사업적 이기보다는 인간회복을 위한 순수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교구설정 50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선구적 교구로서의 긍지를 보존해 나가야 할 중대한 사명감을 더욱 절감합니다. 우리는 선조들이 끌려준 신앙의 유산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면서 더욱 복음적이고 더욱 순수한 모습의 교회를 다시 회복시켜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새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교회상을 정립하고 새로운 선교자세 를 모색하는 준비작업에 어떤 희생이라도 감수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초작업은 책상위의 연구나 행정위주의 계획이 아니라 현안과제를 구체적으로 필요로하는 모든 신자들의 중의를 모음으로 이룩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교구 및 본당 차원의 모든 협의회, 위원회 단체등 사목과 교육을 위한 여러 기구들의 활성화가 시급히 요청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사명의 성취는 카톨릭 교회의 본래적 정신으로 돌아가 편협한 자기본당 이의 위주의 신앙자세를 지양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것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뒤바침하기 위하여 사제와 수제자들의 자발항상은 중요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연례적인 회정이나 세미나 외에도 자발적인 영성구룹과 연구모임을 통해서 보다 천숙한 복음적 목자상 (像)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주교구사의 특색 중 하나인 적극적인 평신도 활동을 회복하기 위해서 평신도의 위치가 더욱 강조되고 적극적인 육성과 참여의 폭이 넓어져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짐하는 반성과 과기는 모두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르 1, 15)하신 복음의 신앙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철저한 신앙은 하느님의 뜻을 철저히 수행할 자세를 표현하는 내적 죄신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친애하는 교구내 모든 하느님 백성 여러분

우리의 각오가 아무리 태산같고 의욕이 아무리 장엄하고 우리의 말이 아무리 아름답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우리의 모든 것이신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읍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을 힘입어 나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필립 4, 13-14) 고 한 학고한 밑음만이 풍요
로운 결실을 맺게 해 줄 것입니다.

1980년 1월 1일

천주교 전주교구장 金在德 주교

80년도 교구 사목지침

1. 기본 사목방침 (방향, 목표)

- 1) 내직 죄신과 복음의 생활화를 위한 심신교육 강화와 적극적인 선교 대책을 모색, 저변 및 계층별 교육, 신자화에 박차를 가한다.
- 2) 제 단체의 활성화와 조직 사도적 활동 강화를 위해 교구 기구 및 사목, 관리행정 통합 체제를 확립 한다.
- 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결성, 치교구적인 계획과 모금운동 전개 및 단계적 작업을着手한다

2. 일반지침

- 1) 사목교서와 지침을 연구하고 전신자들에게 교육, 주지시킬 것
- 2) 금년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고취시키고 각 본당 기관 단체별로 구체적인 활동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것
- 3) 이에 따른 계획과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꾸밀 것을
① 활동 및 사업계획서 제출 : 1980년 1월 10일까지
② 평가 및 결과 보고서 제출 (별도 지시 양식에 의거) : 년 3회
보고 (80년 5월 10일, 9월 10일, 81년 1월 10일)

3. 세부지침 (교육 및 행사)

1) 내적쇄신과 복음의 생활화

- ① 전신자 및 단체 계층별 회정 목상회, 기도회, 성지순례 실사
- ② 전신자 성경, 성가집 보급 및 연구 교육과 발표대회 개최
- ③ 전례 (미사, 성사, 기도) 생활의 적극지도와 100% 참여운동
전개
- ④ 가정방문 및 형제돕기, 봉사활동 적극 추진

2) 제 단체의 활성화와 조직 사도적 활동강화

- ① 교구 제 협의회, 위원회 단체의 보강 및 연구활동 강화
- ② 교육, 공소 사목 연구위원회의 교육 및 자료연구, 제공
- ③ 지도자 교육 및 단체 계층별 특별연수와 조직 혼련회 개최
- ④ 전신자 1인 1단체 가입 (성별, 계층별, 직업별 등) 운동전개
- ⑤ 지구, 본당, 단체간 연구 교류 및 단합 친목대회 개최
- ⑥ 각 본당 및 양 학교의 자체교육 강화

3) 50주년 기념사업 추진

- ① 기념사업 추진 위원회 (교구) 결성 계획 및 대책수립
- ② 교구사 편찬 성지발굴 및 개발사업 단체적 차수

- ③ 기념관 (성당) 건립을 위한 계획 모금운동 전개
- ④ 수교자 혁양대회 및 시복 시성을 위한 기도와 강연회 실시
- ⑤ 각종자료 편집, 확인 정리 및 홍보기구 활용 보급
- ⑥ 각 본당, 기관, 단체 단위 기념행사 계획 연구

4. 행정사무 지침

- 1) 동일 양식에 의한 사목 재정상 월말보고 실시
- 2) 본당 및 단체의 자체 사무감사 (년, 3회) 실시 보고,
- 3) 교구 사무처 사목국 관리국의 수시 본당 및 단체 방문 사목운영 협의
- 4) 사목 및 관리의 제 규정과 지침 작성 시달 및 시행
- 5) 제문서의 확인, 보완 정리 완료 (검열)
- 6) 본당 확인지도는 별도계획에 의해 실시